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곽충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모음조화는 국어와 알타이어가 가진 특징 중의 하나로 모음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모음체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 이 음운 현상은 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친근 관계를 밝히는 계통론적 연구에서도 종종 언급된 바 있다.

국어의 음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모음조화와 모음체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이 음운 현상은 그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또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그 까닭에 모음조화의 실상을 밝히고 그것을 모음체계와 관련지어 해명하고자 한 연구는 한둘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견해를 취하되, 필자의 의견을 보태어 그 대강을 기술하기로 한다. 모음조화를 모음체계와 관련지어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또 현대 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이 음운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2.1. 고대국어

고대국어에 모음조화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로 향가가 있기는 하지만, 향가는 한자를 빌어 우리 말을 적은 것이어서 그 표기에 가려진 당시의 언어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가령, '隱'과 '焉'의 쓰임을 보면 이들이 각각 보조사 '-은'과 '-은'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修叱可(*뉘+아→뉘가, 뉘아)', '折叱可(*꺾+아→꺾가, 꺾어)'처럼 어간 모음과는 무관하게 '-아'가 연결된 듯한 예도 있어 모음조화의 존재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친족 언어와의 비교나 혹은 국어사의 여러 지식을 발판으로 하여 고대국어에도 모음조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주장은 대체로 추론에 의지하여 나온 것이다. 즉 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가정 아래, 이 어족에 속한 언어가 모음조화를 보이므로 우리의 고대국어도 모음조화를 보였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다. 또 후기중세국어(앞으로 '중세국어'라 부르기로 한다)의 모음조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화되었으므로 거꾸로 중세국어 이전은 모음조화가 더욱 엄격하였으리라 보는 것이다.

반면, 모음조화가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현대의 어떤 방언에서는 '-아/-어'계 어미가 교체를 보이지 않고 '-아'로만 나타난다. 방언은 옛 시기의 언어적 흔적을 보여주기도 하므로, 이같은 현상은 본디 국어에 모음조화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세국어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모음조화를 몰랐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보다 앞선 고대국어 단계에서는 모음조화가 없었다고 추측해 보기도 한다.

2.2. 중세국어

중세국어를 살펴보면, 한 단어의 내부에서는 같은 부류의 모음들끼리만 서로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한 부류는 'ㅏ, ㅑ, ㅓ'이고 다른 한 부류는 'ㅕ, ㅗ, ㅛ'이다. 'ㅣ'는 어느 한 편에 구속되지 않고 두 모음 부류와 어울릴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ㅏ, ㅑ, ㅓ'는 양성모음, 'ㅕ, ㅗ, ㅛ'는 음성모음, 'ㅣ'는 중성모음이라 불러 오고 있다. 아래 (1)은 양성모음끼리 또는 양성모음과 중성모음이 어울린 예이고, (2)는 음성모음끼리 또는 음성모음과 중성모음이 어울린 예를 보인 것이다.

- (1) 나랏, 하늬, 사름, 브름, 나모, 소곰, 니마, 아즈미 ...
 (2) 버들, 너출, 무수, 구름, 슌, 술위, 닐굽, 어시...

그리고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거나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부류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즉, 주격이나 대격 등의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끝 모음에 따라 '-은/-은, -는/-는', '-을/-을, -를/-를'로 교체되었고 '-아/-어'계 어미('-아서/-어서', '-아도/-어도' 따위)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교체되었다. 이처럼 모음조화 현상은 조사나 어미의 연결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도', '-과' 등)나 어미('-고', '-다', '-더-' 등)는 모음조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다. 모음조화는 형태소의 첫 모음에 따라, 그 첫 모음과 같은 부류의 모음이 뒤따르는 일종의 동화 현상인 것이다. 이 모음조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조화 체계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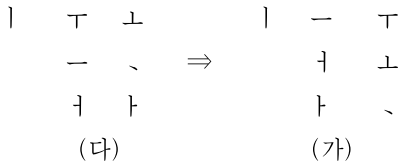
(3) 조화 체계

ㅏ	, ㅑ	ㅣ
ㅓ	- ㅕ	

한편,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의 기록과 이 시기의 음운 현상에 의지하여 재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훈민정음의 '축(縮)', '축/장(蹙/張)' 등과 같은 음성학적 자질을 나타낸 술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기 어려우므로 재구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때문에 어떤 이는 외국어와 그 외국어를 전사한 한글 자모를 비교하여 모음자의 음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재구하기도 하였다. 아래 체계 (가)가 그렇게 해서 재구된 것이며, 체계 (나)는 훈민정음과 중세국어의 음운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한 것이다.



체계 (가)처럼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재구하면 이 모음체계와 위 (3)의 조화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치(不合致)’ 때문에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중세국어의 모음체계 (가)의 반영이 아니고 그 이전 체계의 반영이라는 추정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하여 나온 모음체계가 아래 (다)이다.



체계 (다)에서 ‘ㅌ’가 ‘—’의 자리로, ‘—’는 다시 ‘ㅌ’의 자리로 옮겨 가는 방식으로 모음들이 연쇄적으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가)와 같은 중세국어의 모음체계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모음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모음추이라 부른다. 모음추이가 일어나기 전의 체계 (다)에서는 ‘ㅌ, —, ㅌ’가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 ‘ㅌ, ↓, ㅌ’가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음조화는 이처럼 같은 계열 모음들이 서로 어울리는 동화 현상이다. 이 때 ‘ㅌ’는 양쪽 모음과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중립적인 모음이다. (‘ㅌ’도 본디 양성모음과 어울리던 것과 음성모음과 어울리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언젠가 하나의 ‘ㅌ’로 합쳐졌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조화 체계 (3)과 모음체계 (다)가 합치된다. 요컨대,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그 이전 시기의 모음체계 (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체계는 변화하였지만 그 체계로부터 비롯된 모음조화 규칙은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체계를 묵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게 되면, 국어의 모음조화는 본디 알타이

어와 같은 구개적 조화의 유형에 속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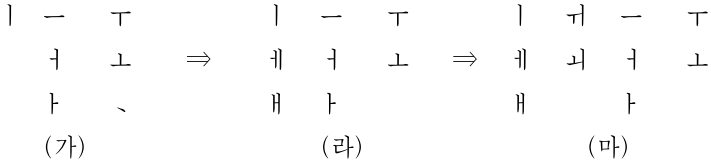
모음조화에서 대립하는 두 모음 부류를 모음체계 속에서 살피면 대체로 세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수평적 조화(고모음 대 저모음의 대립), 구개적 조화(=수직적 조화, 전설모음 대 후설모음의 대립), 사선적 조화(대각선에 의하여 나뉘는 모음간의 대립)가 그것이다. 위 모음체계 (다)는 중설모음 대 후설모음의 대립이므로 구개적 조화의 유형에 드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이는 모음체계와 모음조화를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모음조화의 체계는 모음체계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나)는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의 ‘축(縮)’을 ‘혀의 오므림’으로, ‘축(蹙)’을 ‘입술의 둥글’으로 해석하여 수립한 체계이다. ‘ㅣ’를 제외한 모음들은 조음시에 혀를 뒤로 끌어당겨서 발음하게 되는데, 이 때 혀를 오므리는 정도(즉, ‘축(縮)’의 정도)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등에 착안한 것이다. 이 체계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나)에서 보듯 사선적 조화에 해당한다. 요컨대, 이 견해는 모음조화의 체계와 모음체계가 합치된다는 점에서 (가)에 바탕을 둔 해석과 대조적이다.

모음조화는 이미 중세국어 단계에서 부분적인 동요를 보였지만, 16세기에 들어서서 비어두 위치의 ‘· > ㅡ’ 변화로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근대국어 단계에 들어서서는 그것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2.3. 근대국어

음운의 체계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어서 내부에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다시 안정된 체계를 향하여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언어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 국어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음체계는 그 동안 술한 변화를 겪어 왔다. 중세국어의 모음체계(가)에서 볼 수 있었던 ‘·’가 18세기 후기에 ‘ㅏ’에 합류하면서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는다.



(라)는 ‘, ’의 소멸로 인한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겨난 체계로 대략 18세기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 이었던 ‘ㅌ[ay]’, ‘ㅌ[əy]’가 각각 [ɛ], [e]로 단모음화(單母音化)하여 이루어진 8모음체계이다. 이 후에 다시 이중모음 ‘ㄱ[uy]’, ‘ㄴ[oy]’가 각각 [ü], [ö]로 단모음화하여 (마)의 10모음체계가 되었는데, 대략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체계 (마)는 중세국어의 하강적 이중모음 ‘ㅌ, ㅌ, ㅌ(>ㅌ), ㄱ, ㄴ’가 단모음화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아직도 단모음화하지 않고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예가 황해·충청 일부 방언에서 발견된다. 가령, ‘새[鳥]’, ‘매[鷹]’를 ‘사이’, ‘마이’라 한다가거나 ‘게[蟹]’를 ‘거이’(또는 ‘그이’)라 하고 ‘외[瓜]’를 ‘오이’라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충남방언에서는 지금도 ‘ㄱ’을 이중모음 [uy]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처럼 근대국어 단계에 접어들어 모음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기존의 모음조화 규칙이 이러한 모음체계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변화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단모음화한 ‘ㅌ’가 양성모음의 부류인 ‘ㅌ, ㅌ’에 편입되고 ‘ㅌ’가 음성모음의 부류인 ‘ㅌ, ㅌ, 一’에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ㅣ’가 점차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밖에 근대국어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전개된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의 ‘ㅌ>ㅌ’ 변화(예, 나무)나무, 고초>고츄, 가마괴>가마귀)도 모음조화 붕괴의 한 요인이다. 이러한 음운변화로 단어 내부의 모음조화는 쇠퇴 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가 어두 음절 모음에 의한 동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ㅌ>ㅌ’ 변화를 억제하지 못하였을까? 그것은 동화주인 어두 음절 모음의 조화력이 약화된 때문이다. 가령, ‘나무[木]>나무’의 변화에서

‘나모’의 모음 ‘ㅏ’와 ‘ㅑ’는 양성모음에 속하는 것이어서 조화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무’는 그러한 질서가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첫 음절 모음 ‘ㅏ’가 ‘ㅑ>ㅓ’의 변화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ㅏ’의 조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옛 체계에 바탕을 둔 모음조화보다 새로운 체계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ㅑ>ㅓ’가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이다.

한편,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에/-익/-에’ 따위의 조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16세기부터 시작된 ‘>ㅓ’ 변화의 결과로 점차 음성모음으로 시작하는 이형태(‘-을’, ‘-은’, ‘-에’ 등)로 단일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용언 어간에 결합되는 ‘-아/-어’계 어미만이 모음조화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예), 잡+아→잡아, 빅오[學]+아→비와 등. 이 때 비어두 위치의 ‘ㅓ’는 이 조화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그러나 19세기 후기에는 ‘잡+어→잡어’에서 보듯 양성모음 어간에 ‘-어’가 연결되기 시작하여 이 환경에서마저도 모음조화는 점점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요컨대, 중세국어의 정연했던 모음조화는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2.4. 현대국어

현대국어의 모음조화는 음성상징어나 ‘-아/-어’계 어미에서만 그 명맥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 ‘출랑출랑’,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상징어들은 모음에 따라 그 음감이 달라진다. 양성모음은 작고,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음성모음은 크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이처럼 음성상징어는 그 기반을 조화 체계에 두고 있으므로 그것이 무너지면 자신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음성상징어에서 모음조화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서울 및 그 인근 지역에서는 ‘-아/-어’계 어미의 교체에서 모음조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서울 토박이말에서는 어간 모음이 ‘ㅑ, ㅓ’일 때에 ‘-어’가 연결됨이 일반적이다. 오직 ‘오-’, ‘중-’, ‘굽-’ 따위와 같이 어간 모음이 ‘ㅑ’일 때에만 ‘-아’가 연결될 뿐이어서 모음조화의 말기적 현상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단음절 어간으로서 모음이 ‘ㅏ, ㅑ, ㅑ’일 때 ‘-아’로 적도록 정해 놓고 있는 현행 한글맞춤법의 규정은 언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함경·평안방언과 강원도의 일부 방언은 아래 (4)와 같이 대체로 ‘ㄴ’의 변화와 ‘ㄱ>ㄷ’ 변화가 완료된 근대국어 후기 단계의 모음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 (4) 밧고다)바꾸다, (신을) 바꾸+아 → [바짜]
 ㄹ초다)갓추다, (짐을) 갓추+아라 → [가짜라]
 고르다)고르다, (땅을) 고르+아서 → [골라서]

다음절 어간 모음이 ‘ㅐ, ㅑ, ㅓ’일 때에는 물론 ‘-아’가 연결되며, 위 (4)처럼 2음절 어간의 첫 음절 모음이 ‘ㅑ, ㅓ’일 때에도 ‘-아’가 연결된다. ‘ㅣ’는 음성모음으로 기능한다. 이 때 역사적으로 ‘ㄴ>ㄷ’, ‘ㄱ>ㄷ’ 변화를 겪은 비어 두 음절 위치의 ‘ㄷ’와 ‘ㄷ’는 모음조화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이를테면 부분 중립 모음이 되는 셈이다.

맞춤법에서, 종전에 ‘가까와’로 적도록 한 것을 남한이 ‘가까워’로 적도록 바꾼 반면, 북한이 그대로 ‘가까와’로 적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언어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한 면이 있다.

남한 방언에서의 모음조화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충남과 경북 동해안 지역이다. 충남방언에서는 ‘오-’, ‘중-’, ‘농-’와 같이 어간 모음이 ‘ㅓ’이면서 받침이 없거나 ‘ㅎ’으로 끝나는 용언을 제외하고는 아래 (5)에서 보듯 ‘-어’가 연결되며, 반대로 경북 동해안 방언에서는 (6)처럼 어간 모음이 무엇이든 ‘-아’가 연결된다.

- (5) (자리가) 쭈(쭈)어서, (고기를) 잡어서, (열매가) 맺어서
 (6) (소리를) 들아도, (돈을) 꼬:도(꾸-아도), (술을) 바아도(붓-아도)

이처럼 현대국어는 방언에 따라 모음조화 양상이 천차만별이지만, 이는 근대국어 단계에서 볼 수 있었던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조화 규칙이 점점 쇠잔해 가는 모습(지역에 따라 그 흔적을 좀더 많이 지니고 있다거나 또는 적게 지니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5)의 충남방언과 (6)의 경북 동해안 방언은 그 극단을 보여준다. 이들 방언에서는 ‘-어’

또는 ‘-아’ 중의 어느 하나로 단일화되었거나 단일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 방언의 역사를 좀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는 하다. 요컨대, 현대국어에서 볼 수 있는 모음조화의 잔재는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앞 시기의 유흔(遺痕)일 뿐이다. 오직 중세국어에서 왕성한 힘을 가졌던 모음조화라는 음운규칙이 그 종말을 고하는 말기적 현상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3. 맺는말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정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대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에 이르는 동안 모음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이러저러한 음운변화의 결과로 모음조화는 쇠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음성상징어와 ‘-아/-어’계 어미의 교체에서 모음조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현대의 몇 방언에서는 ‘-아/-어’계 어미마저도 ‘-어’ 또는 ‘-아’로 단일화되었다. 모음조화와 모음체계가 표리 관계에서 출발은 하였지만, 모음조화라는 음운 현상은 모음체계의 변화 그리고 음운변화의 결과로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중세국어의 모음조화가 그 시기의 모음체계와 합치(合致)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합치해야 하고 합치한다는 견해도 있다. ‘불합치’한다는 전자의 견해를 따르면,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그 이전 시기의 모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되고 또 국어의 모음조화는 본디 전후 대립의 구개적 조화였다고 할 수 있다.